

# 여론조사꽃 제3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5\_03

## ARS+CATI

제37차 ARS조사

제22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 여론조사꽃

## 제39차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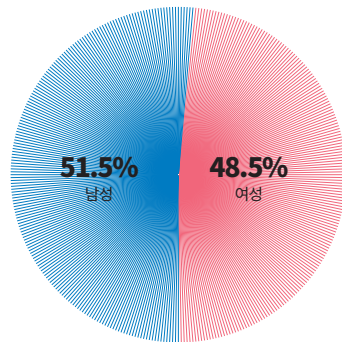
## ARS & CATI

####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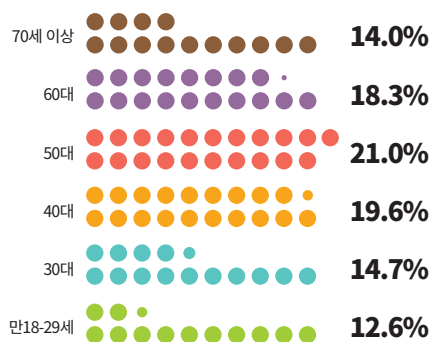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4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응답률	3.2% [총 통화시도 31,414명]
조사기간	2023년 5월 12일 ~ 5월 13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남성	516	51.5	497	49.6	0.96
	여성	486	48.5	505	50.4	1.04
연령	만18~29세	126	12.6	165	16.5	1.31
	30대	147	14.7	151	15.1	1.03
	40대	196	19.6	181	18.1	0.92
	50대	210	21.0	196	19.6	0.93
	60대	183	18.3	170	17.0	0.93
	70세 이상	140	14.0	139	13.9	0.99
지역	서울	193	19.3	188	18.8	0.97
	인천·경기	327	32.6	319	31.8	0.98
	대전·세종·충청	98	9.8	105	10.5	1.07
	광주·전라	98	9.8	97	9.7	0.99
	대구·경북	95	9.5	99	9.9	1.04
	부산·울산·경남	149	14.9	150	15.0	1.01
	강원·제주	42	4.2	44	4.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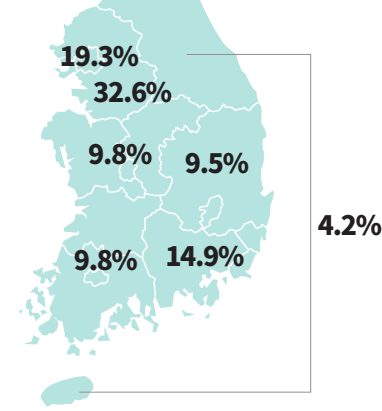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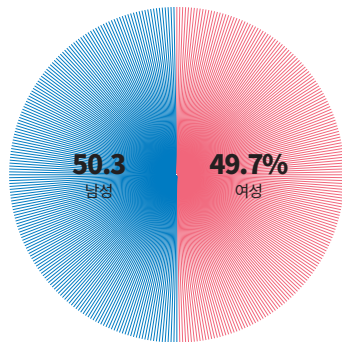


####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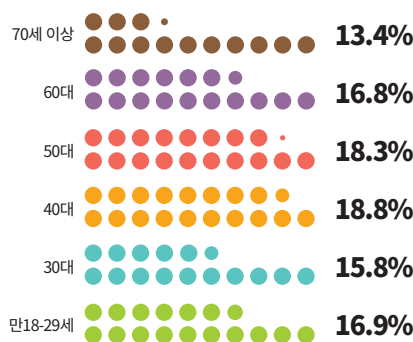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4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7.8% [총 통화시도 5,705명]
조사기간	2023년 5월 12일 ~ 5월 13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7	100.0%	1,017	100.0%	1.00
	성별					
	남성	512	50.3	506	49.8	0.99
	여성	505	49.7	511	50.2	1.01
연령	만18~29세	172	16.9	167	16.4	0.97
	30대	161	15.8	151	14.8	0.94
	40대	191	18.8	186	18.3	0.97
	50대	186	18.3	198	19.5	1.06
	60대	171	16.8	173	17.0	1.01
	70세 이상	136	13.4	142	14.0	1.04
지역	서울	191	18.8	190	18.7	0.99
	인천·경기	322	31.7	325	32.0	1.01
	대전·세종·충청	112	11.0	107	10.5	0.96
	광주·전라	97	9.5	99	9.7	1.02
	대구·경북	99	9.7	100	9.8	1.01
	부산·울산·경남	154	15.1	151	14.8	0.98
	강원·제주	42	4.1	45	4.4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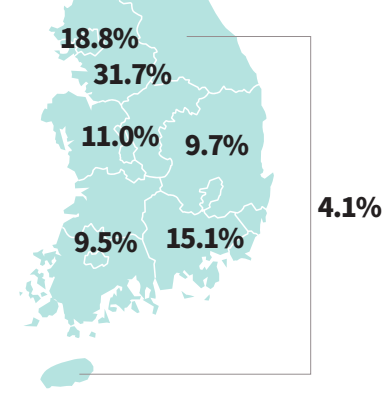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호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 여론조사꽃 제3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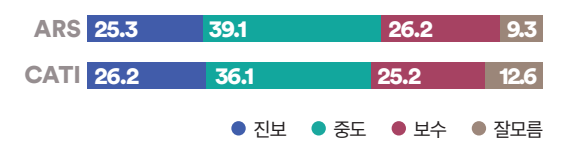
##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3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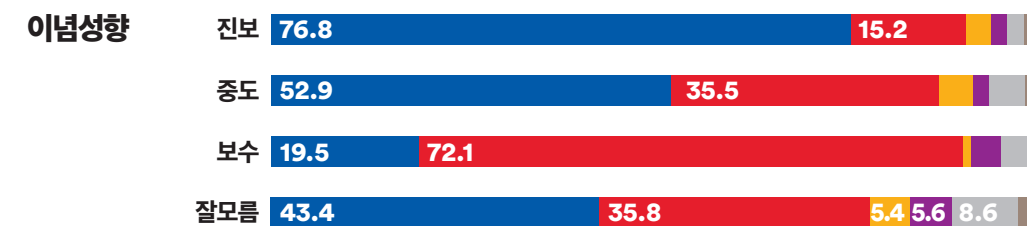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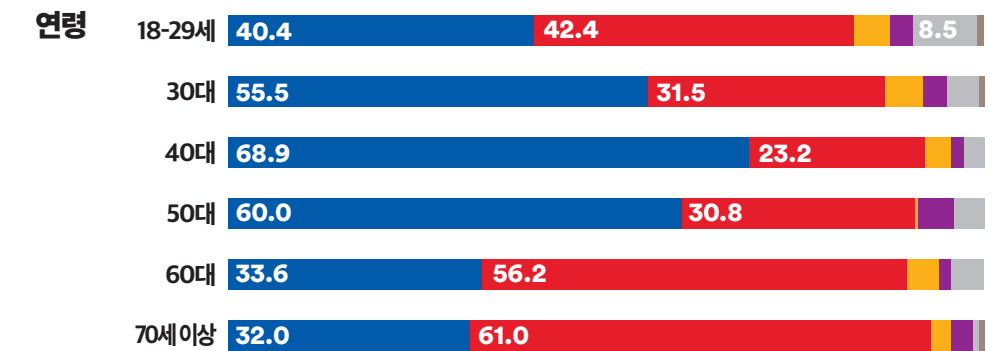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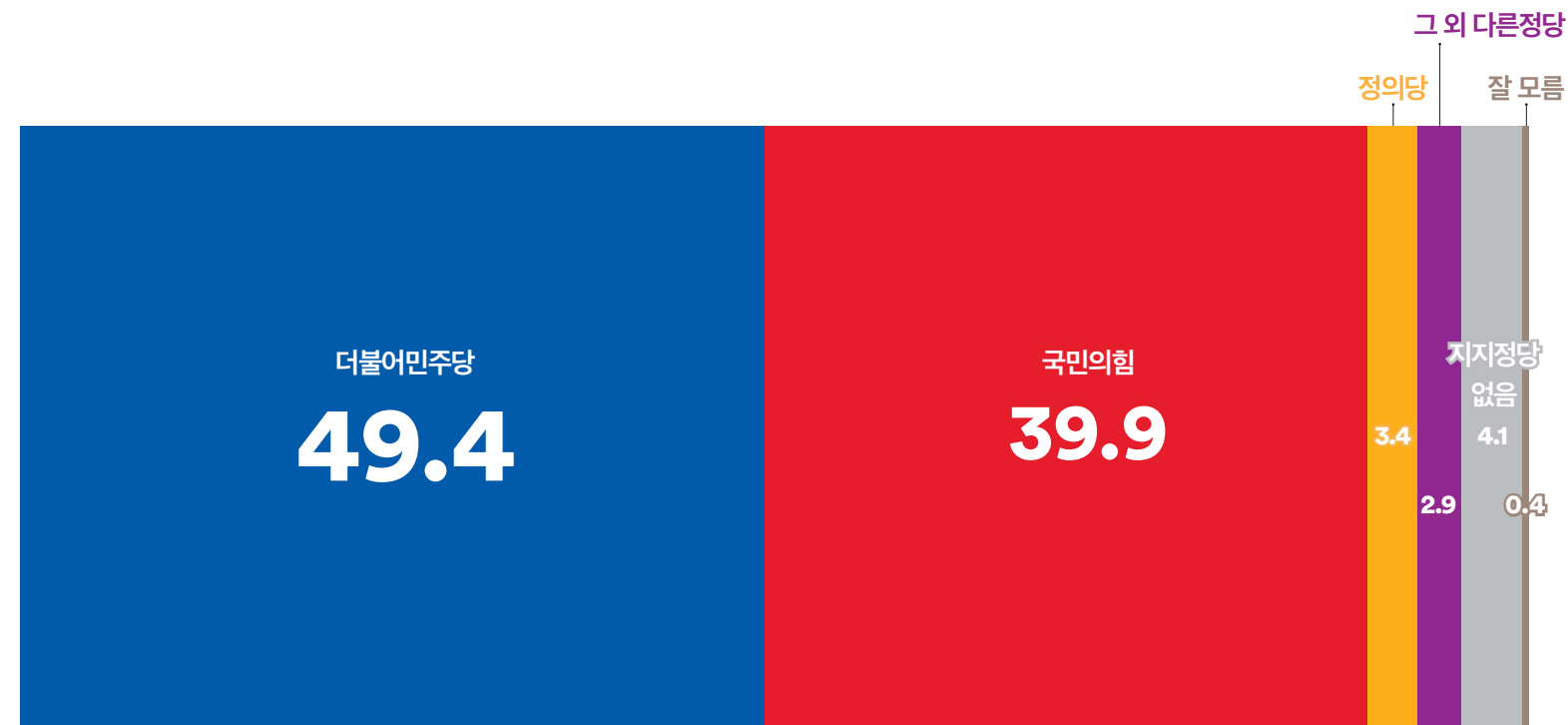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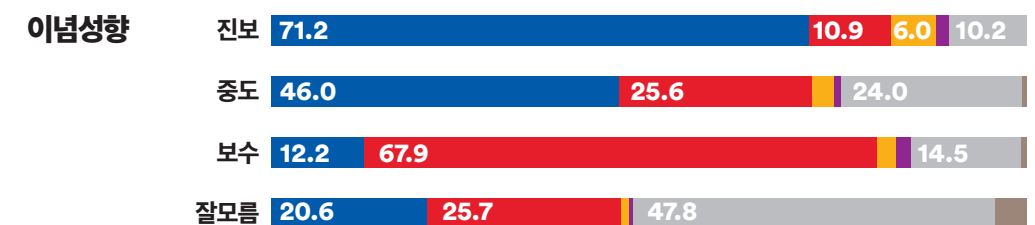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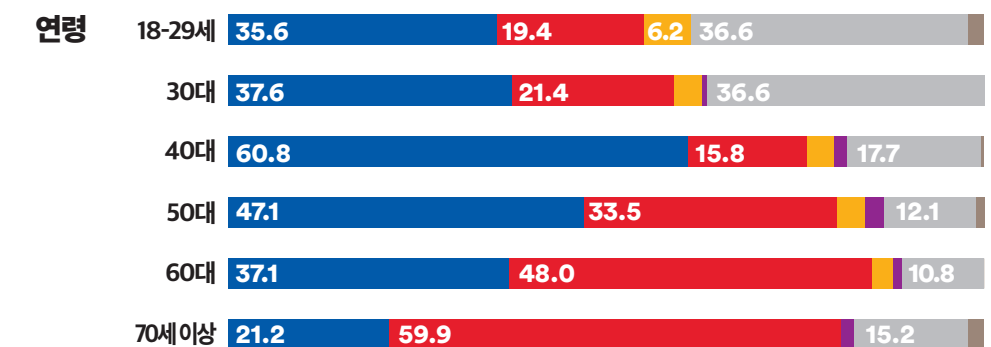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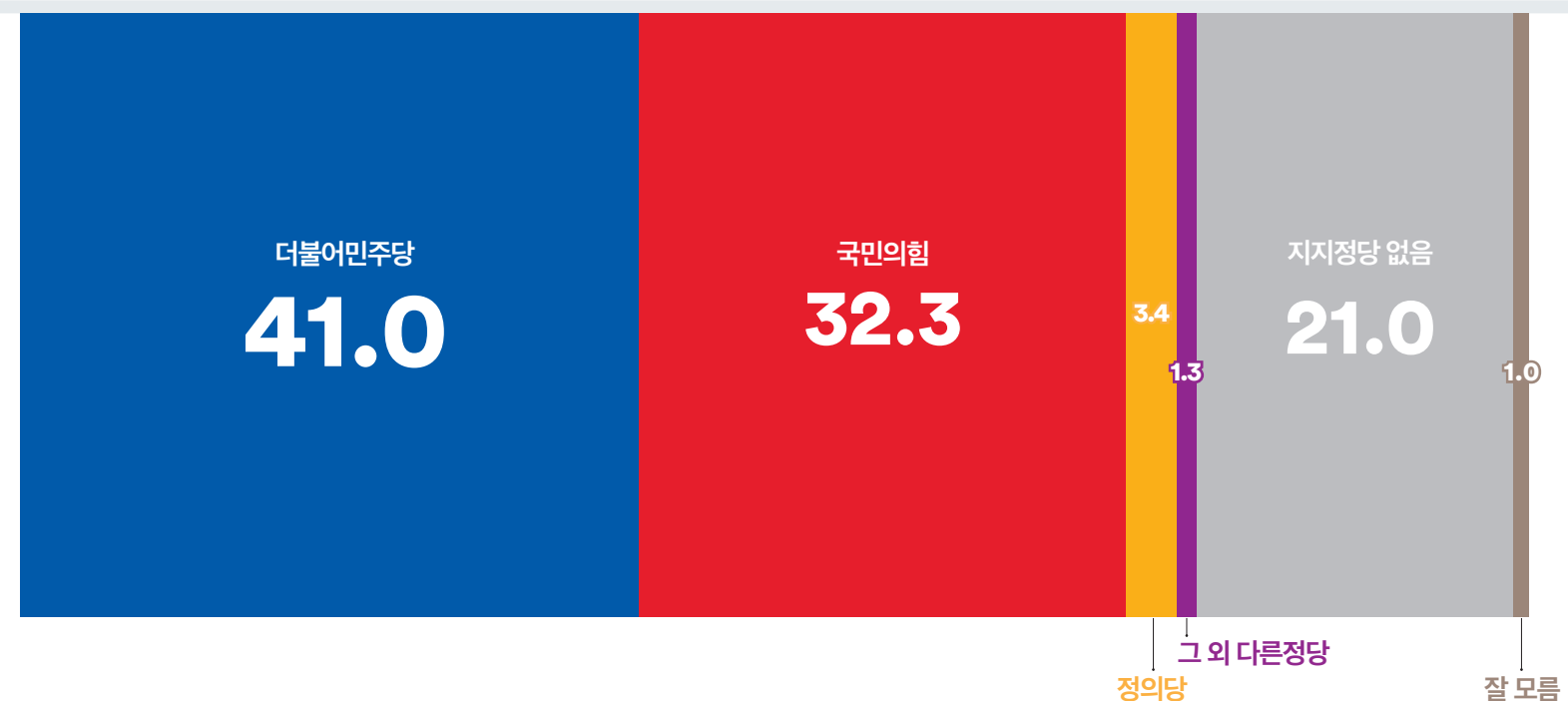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3%p 하락, 국민의힘 3.0%p 상승(격차 9.5%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2%p 하락, 국민의힘 2.8%p 상승(격차 8.7%p)  
 CATI와 ARS 조사 모두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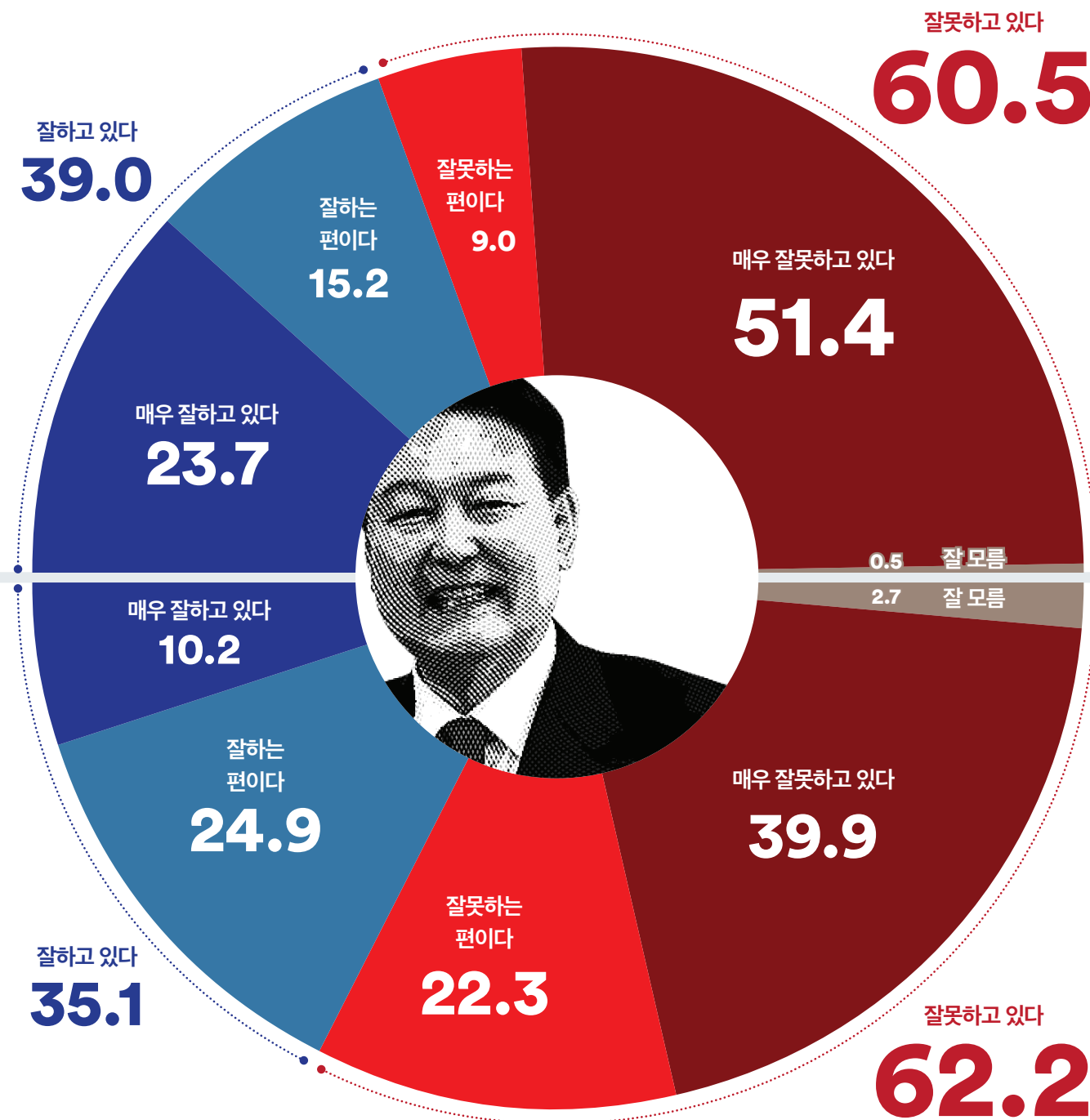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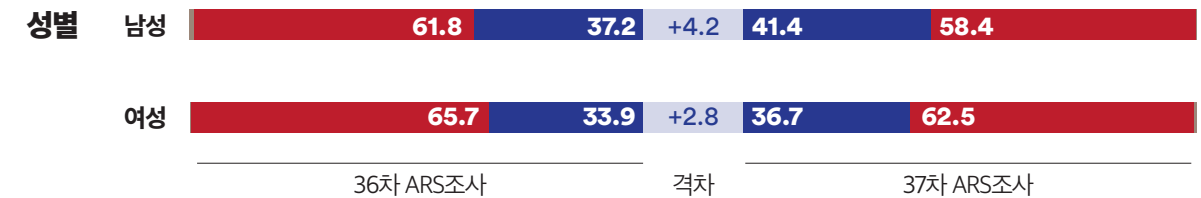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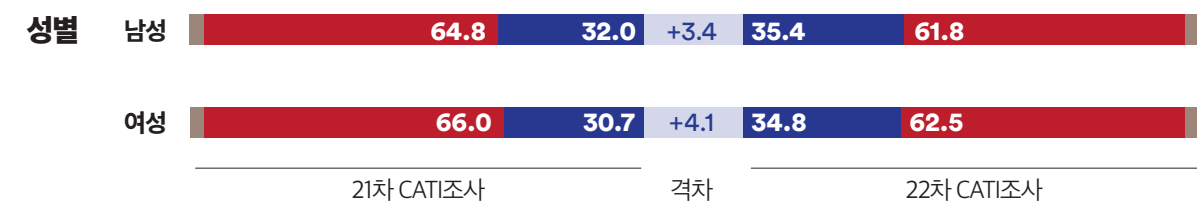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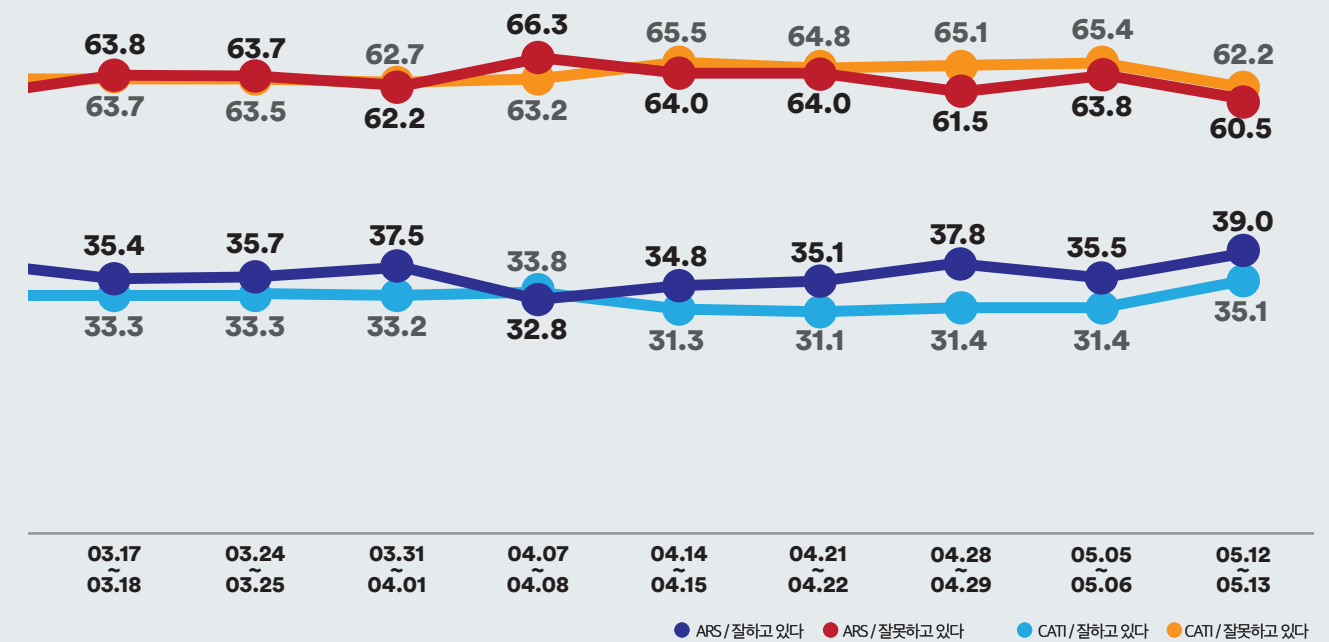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3.5%p 상승, 부정평가 3.3%p 하락 (격차 21.5%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3.7%p 상승, 부정평가 3.2%p 하락 (격차 27.1%p)  
 남·녀 모두, 50대이하 응답층, TK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에서 부정평가 앞섬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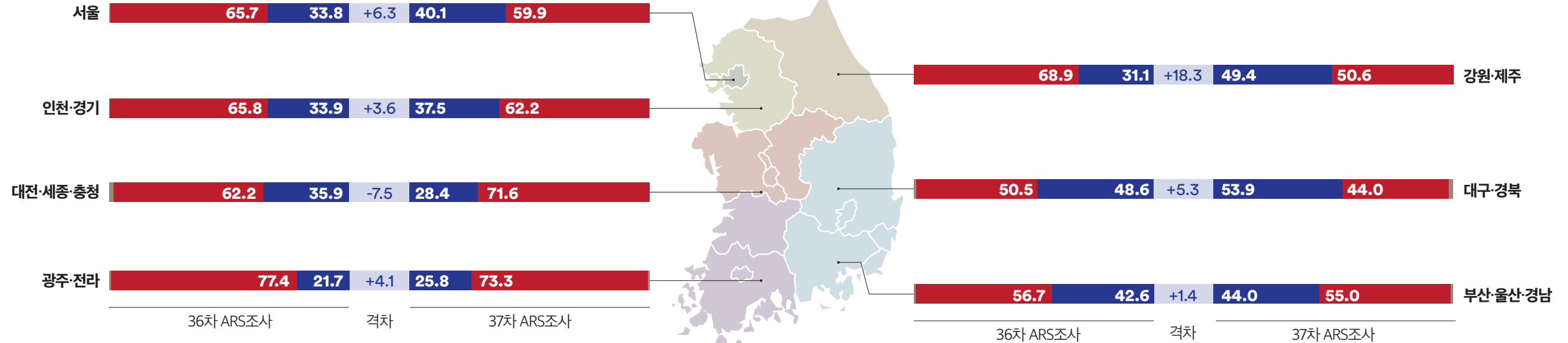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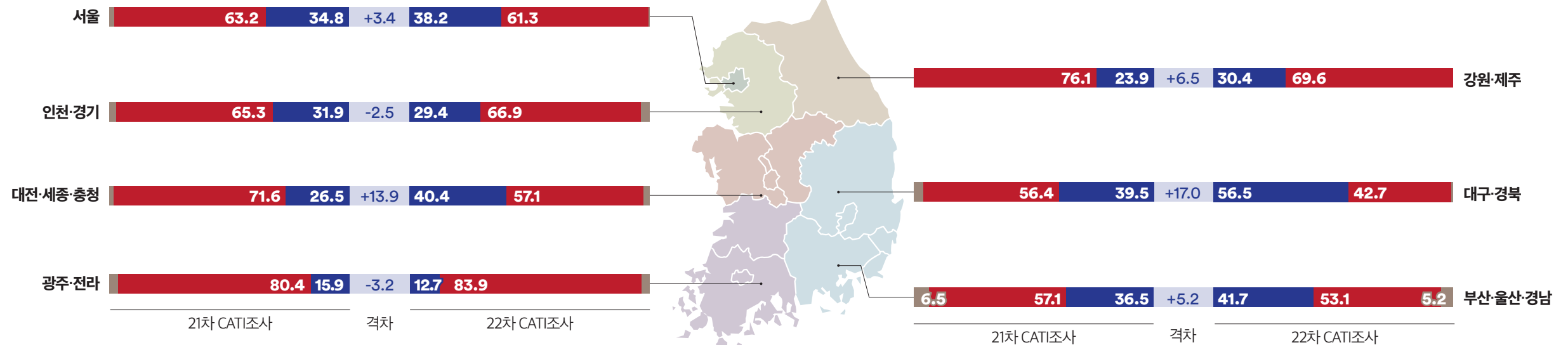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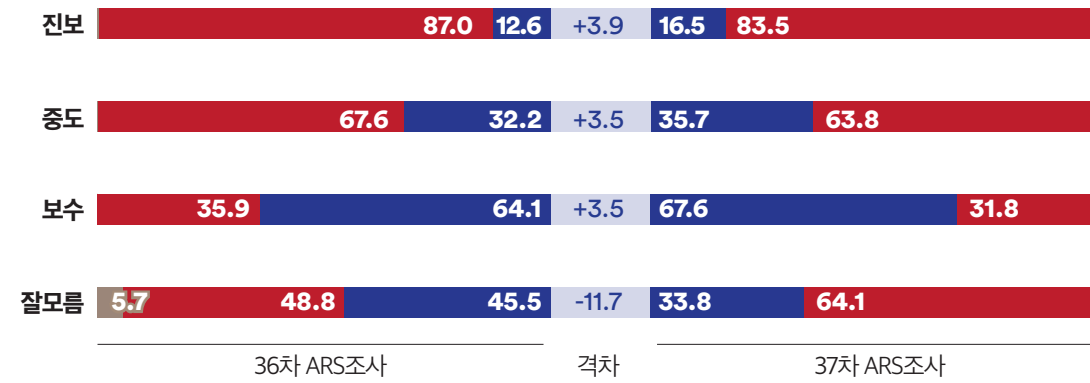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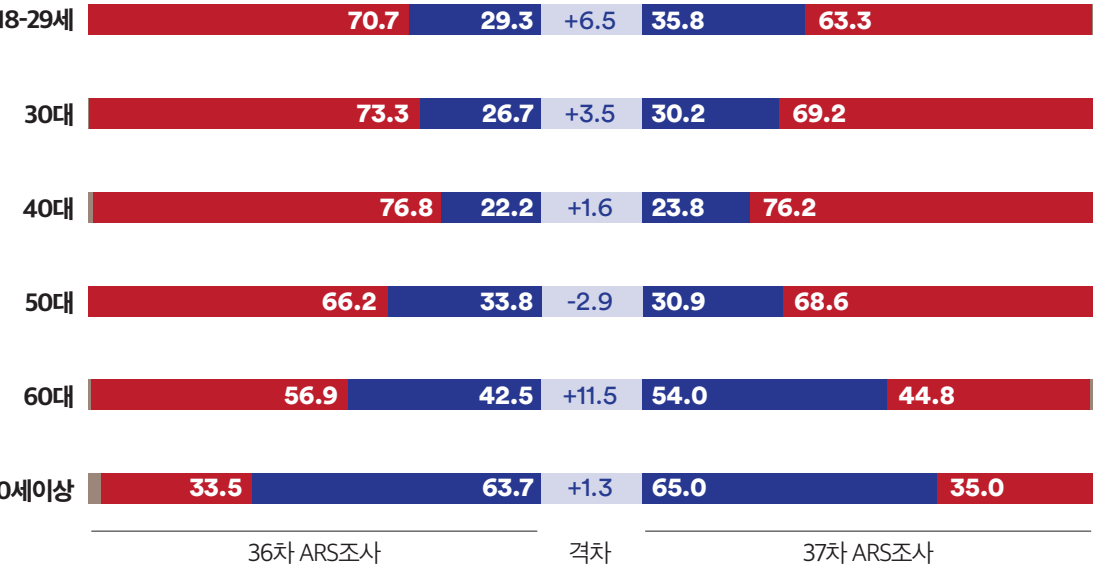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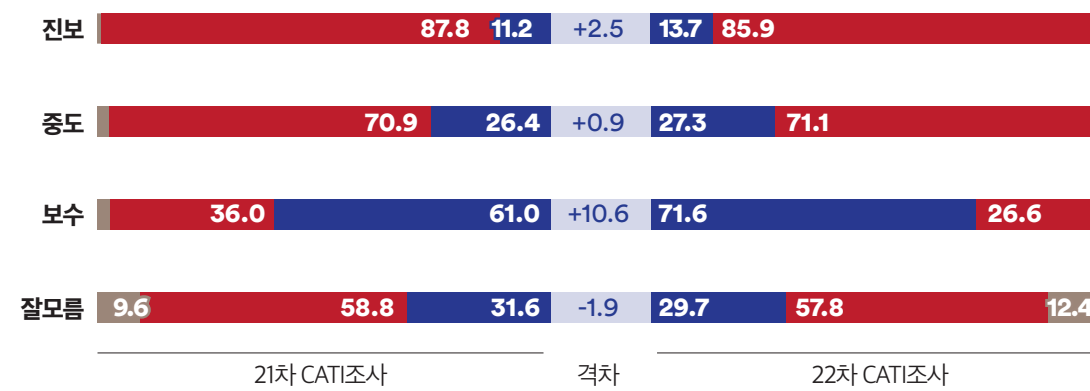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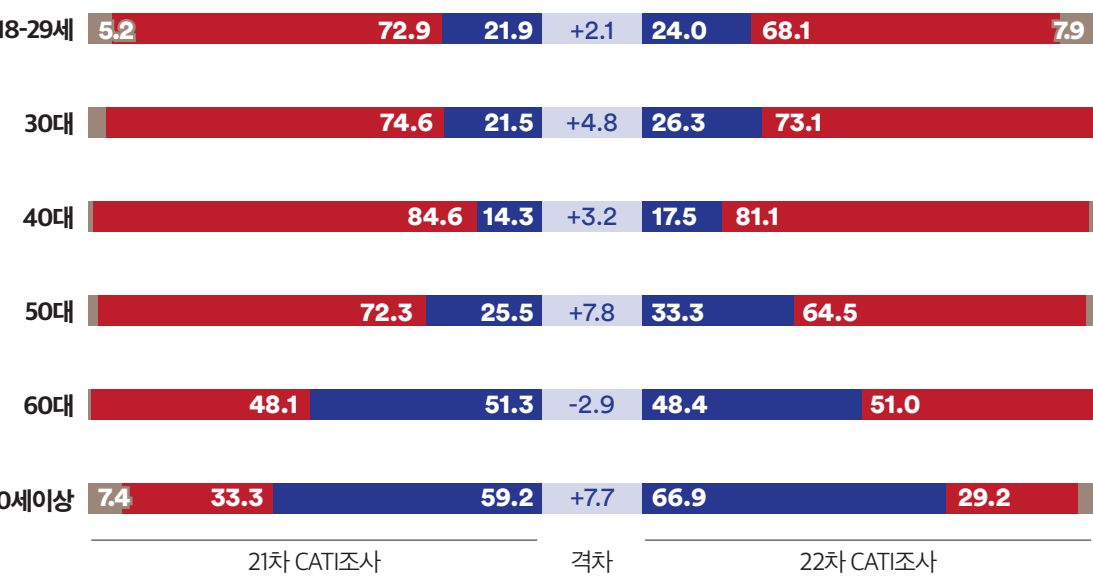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 여론조사꽃 제3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한·일 정상회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ARS & CATI / CATI

마음이 아팠던 기시다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어변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재개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일본은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LPS 처리 과정에서 삼중수소와 탄소14는 걸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생물체 내에서 흡수되기 쉬운 성질이 있어 유기적으로 결합해 유전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었고, 한·일 정부는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시찰단 방문의 성과를 예측해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도 재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의 방침처럼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변경 하는것을 검토하겠다는 보도와 그 내용을 부인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마음이 아팠던 기시다총리

Q.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다수의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데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힘든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  
“저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기시다 총리 발언]

일본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한 말이므로  
사죄 발언이라 할 수 있다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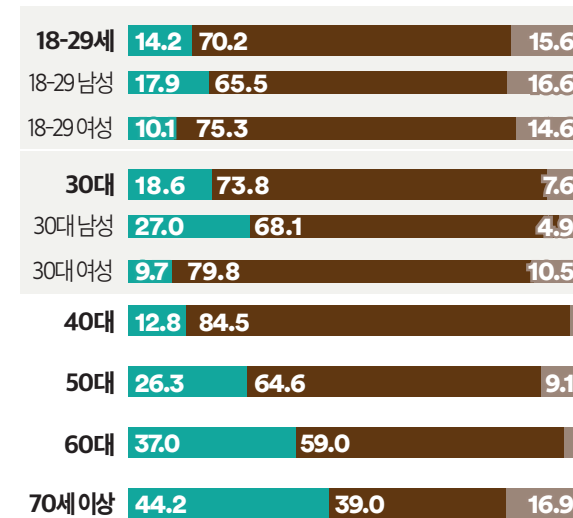
대상도 특정하지 않은  
개인 감정이므로  
역사에 대한 사죄가 아니다

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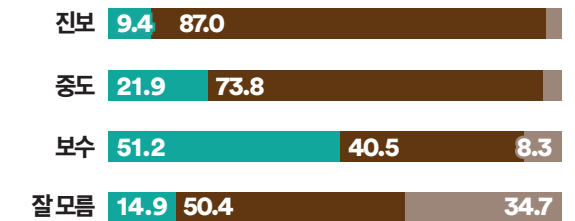
잘 모름  
9.0

10명 중 6명 이상은 ‘사죄가 아니다’고 응답, ‘사죄 발언’이라는 응답 대비 압도적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권역, 성별, 이념, 연령에서 ‘사죄가 아니다’란 의견 우세  
한일관계에서 역사적 문제 해결이 없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것임을 보여주는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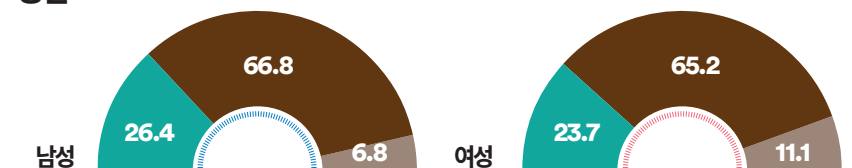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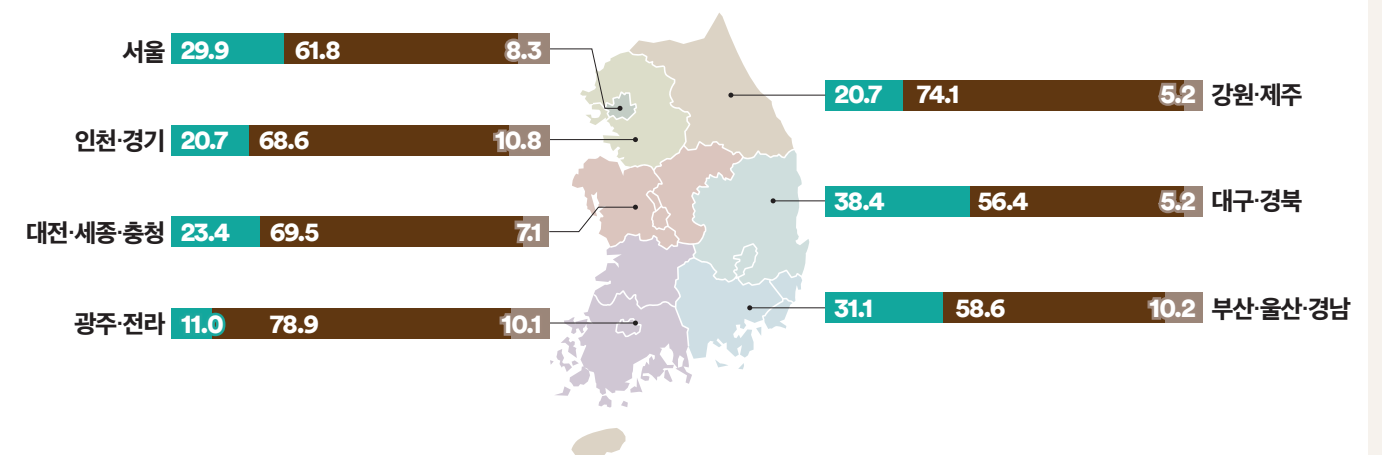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사죄발언이라 할 수 있다    개인감정이므로 사죄는 아니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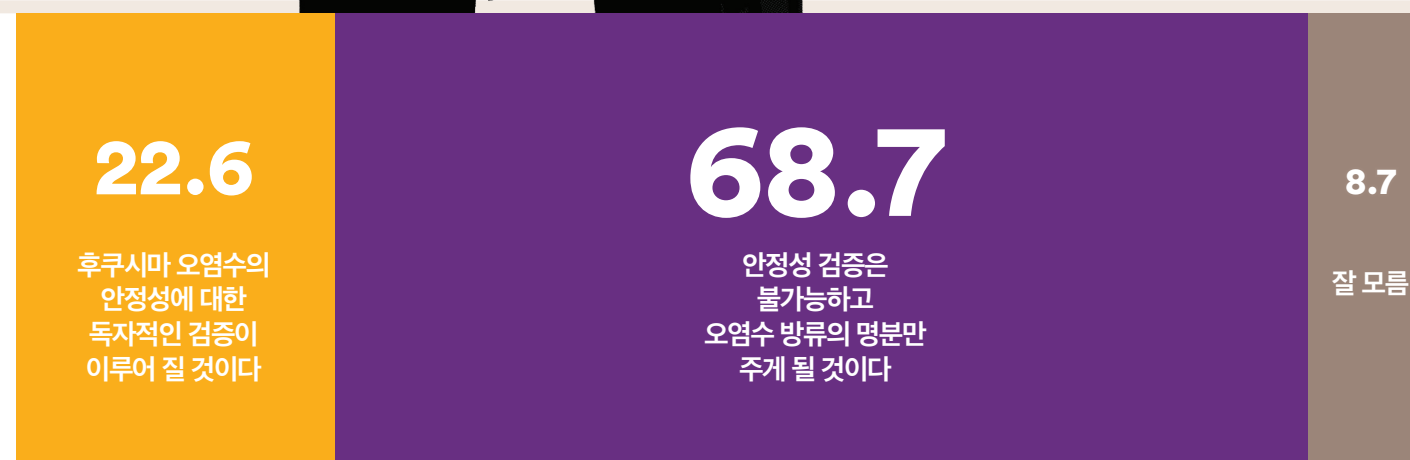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Q.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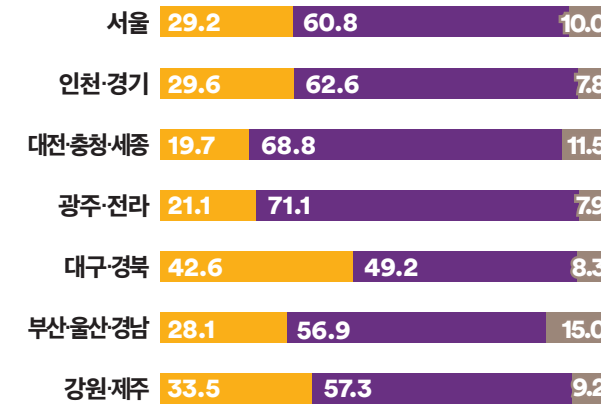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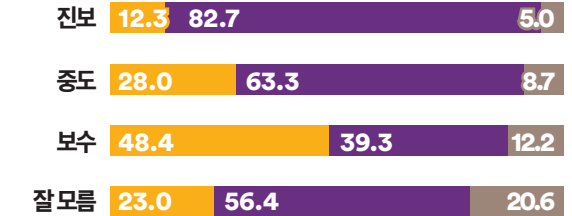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검증은 하지 못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주게 될 것'이란 응답이 우세  
 '검증 못하고 방류의 명분만 주게 될 것'이란 응답은 CATI 조사의 모든 권역,성별, 연령에서 앞섰고,  
 ARS 조사에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 성별, 권역에서 앞섬  
 무당층(ARS 80.6% / CATI 71.3%)과 중도층(ARS 63.3% / CATI 76.4%)에서도 강한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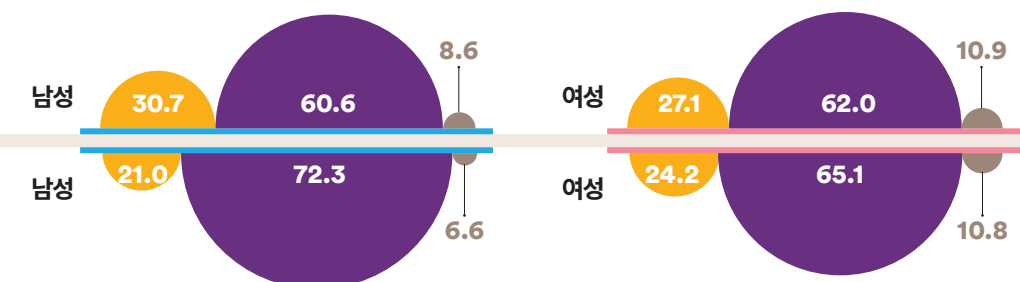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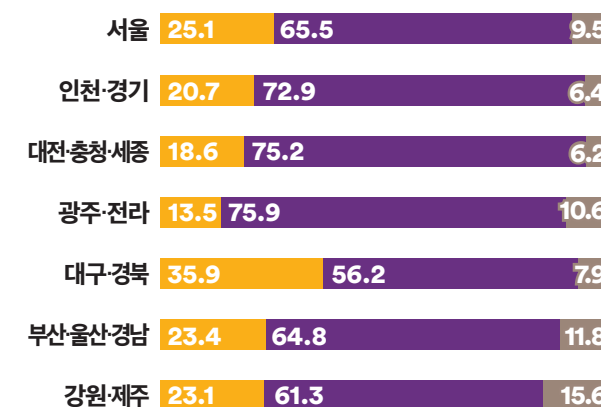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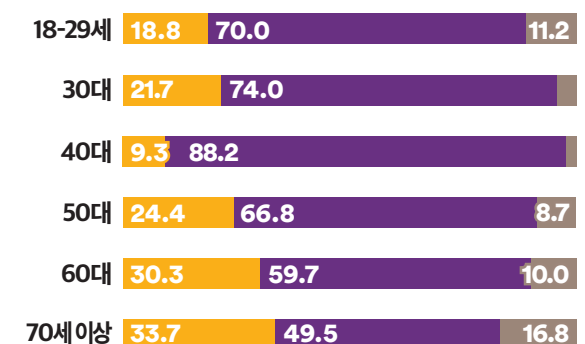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독자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 안전성 검증은 불가능하고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주게 될 것이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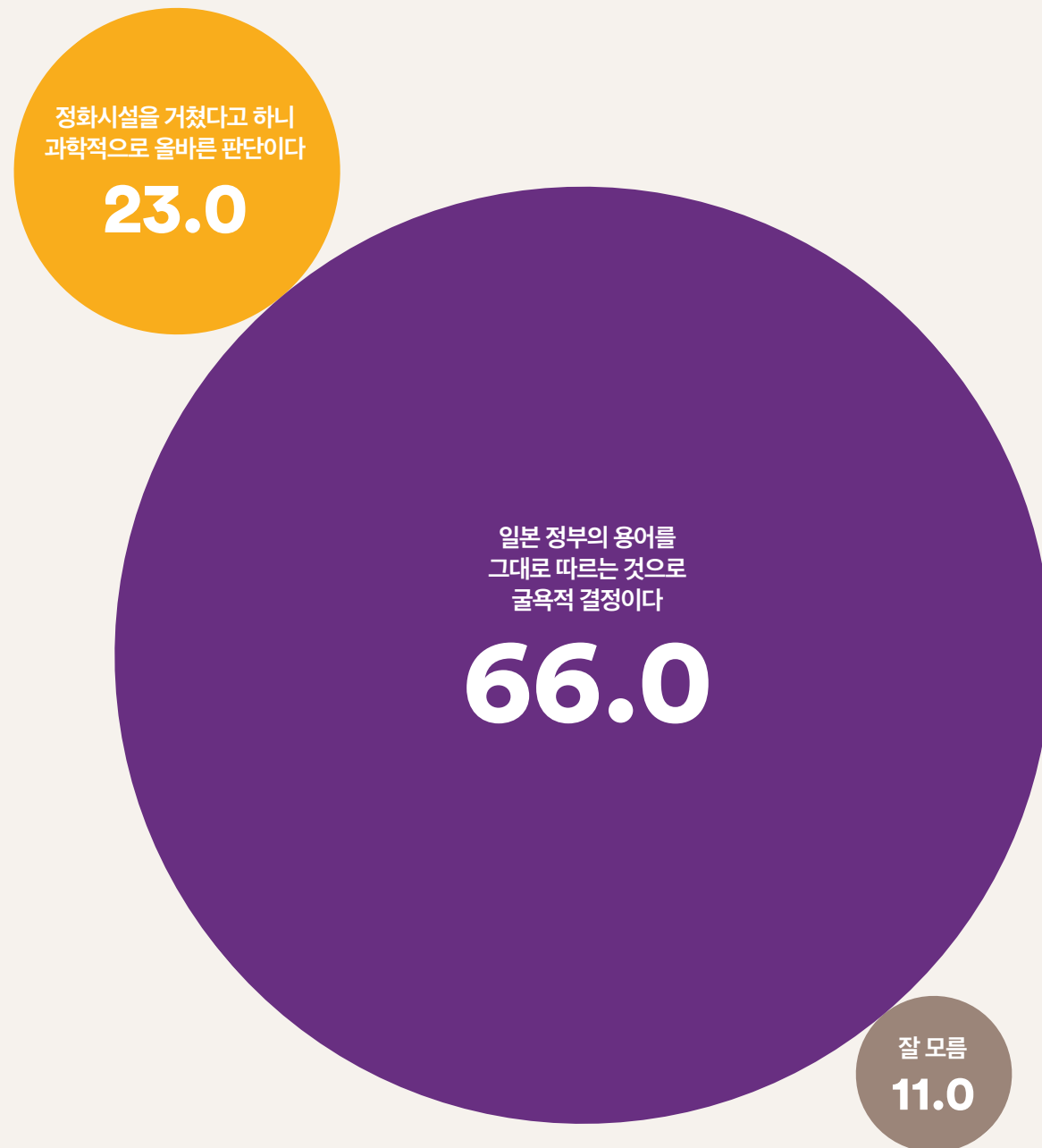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여론조사



## 정치·사회 현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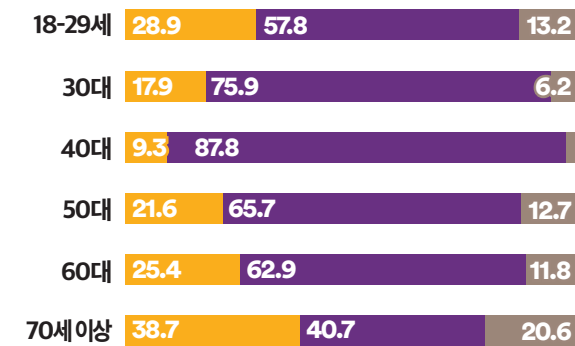
Q. 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변경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이를 부인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용어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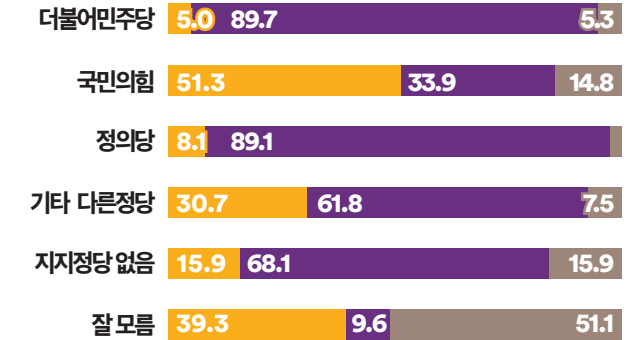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굴욕적 결정'이라고 응답

모든 권역, 성별, 연령대에서 '굴욕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앞서며,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굴욕적 결정'이란 응답이 우세  
보수층(올바른 판단 42.3% / 굴욕적 결정 43.5%), 국민의힘 지지층(올바른 판단 51.3% / 굴욕적 결정 33.9%)의 응답도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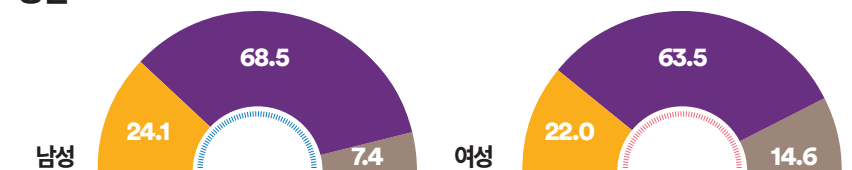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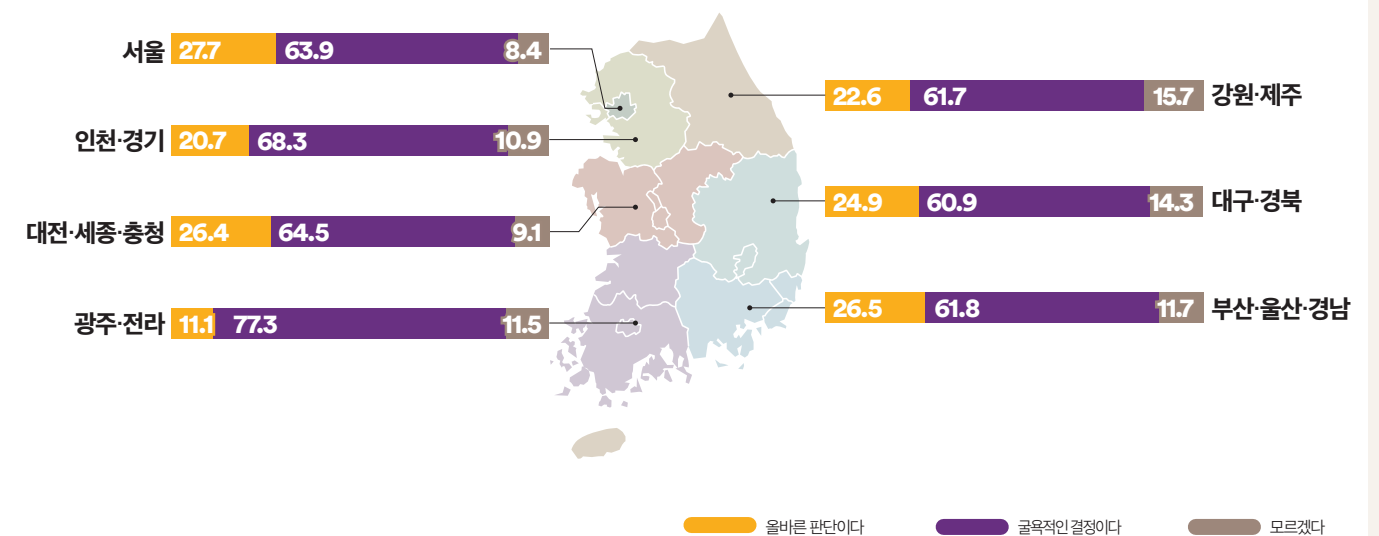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 성별



##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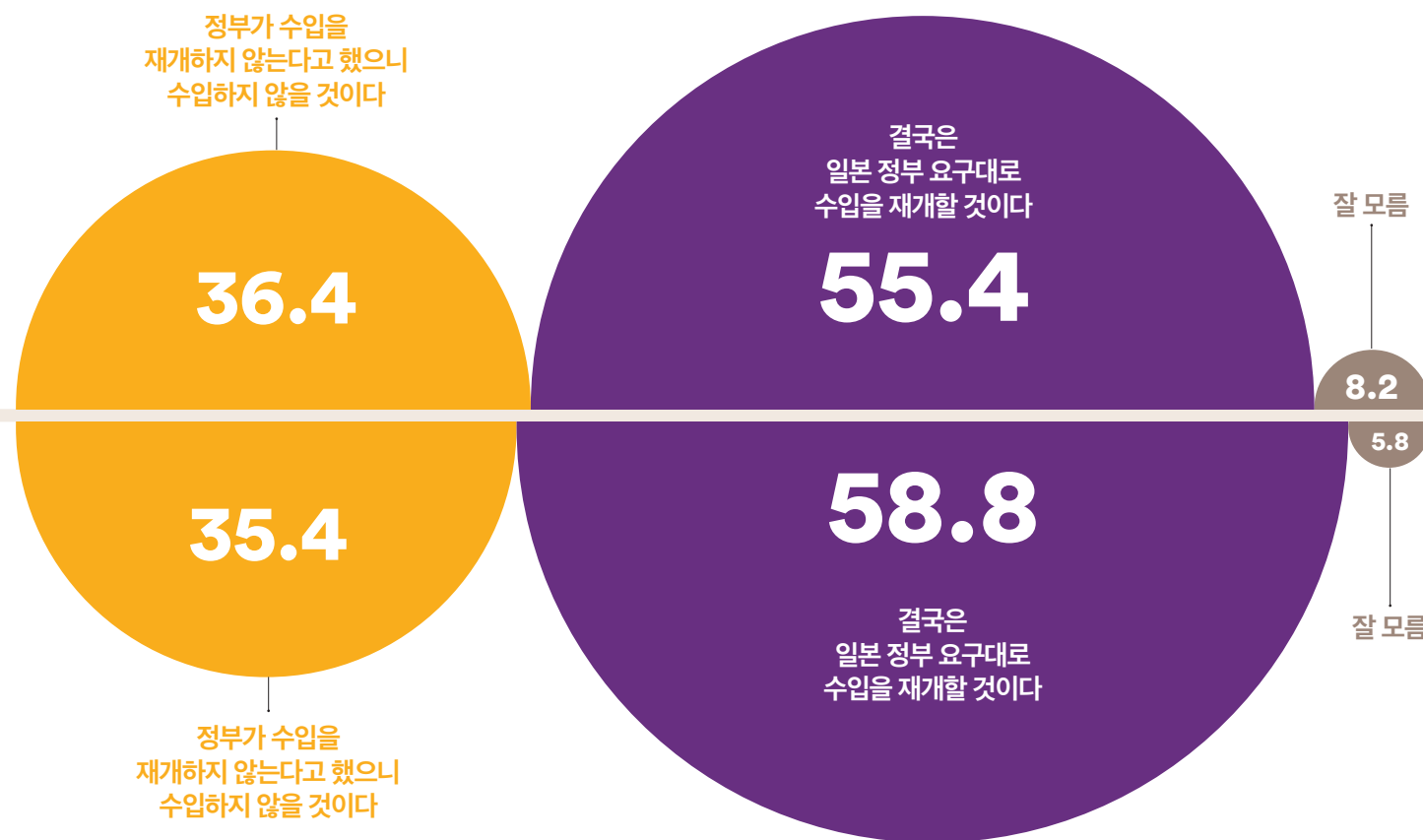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재개

Q.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역시 막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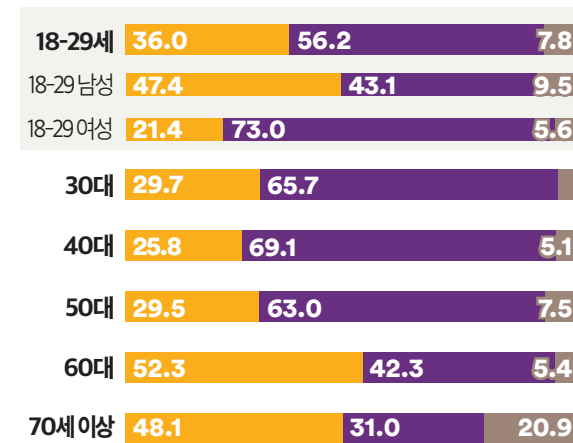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5명 이상은 ‘결국 일본 정부 요구대로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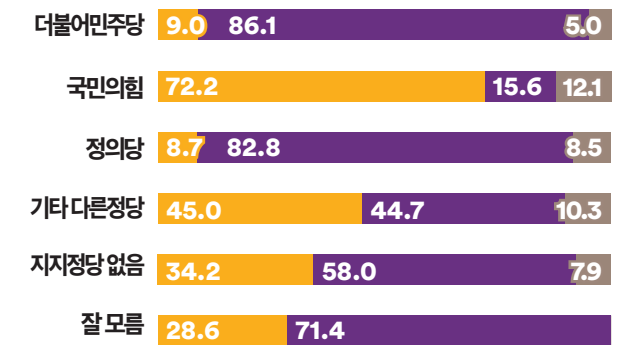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결국 일본 정부 요구대로 수입을 재개할 것’이란 응답이,

70대 이상 응답층에서는 ‘수입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를 보여 세대별 정부의 정책 운영방향에 대한 신뢰도 차이를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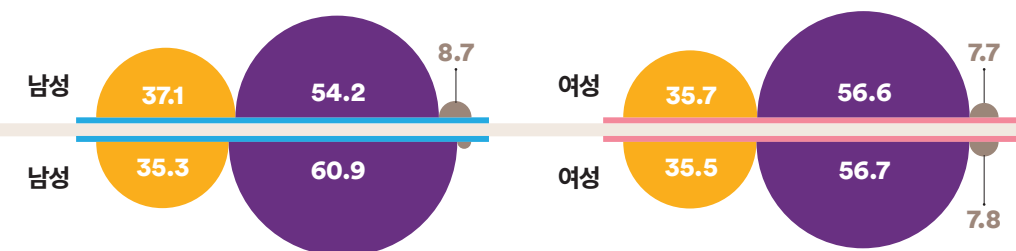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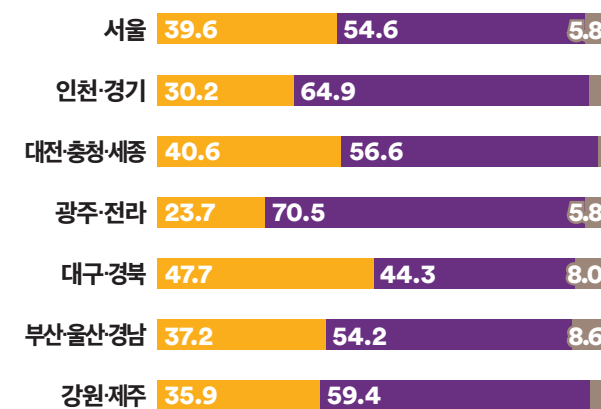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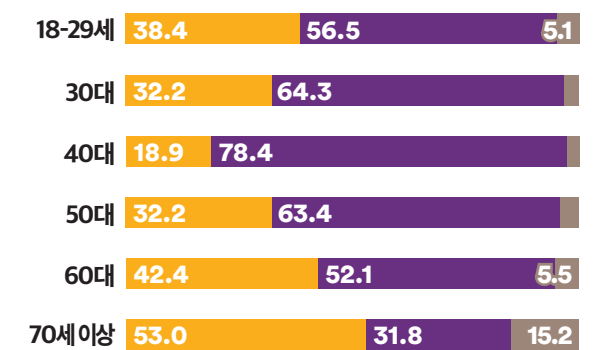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 결국 수입할 것이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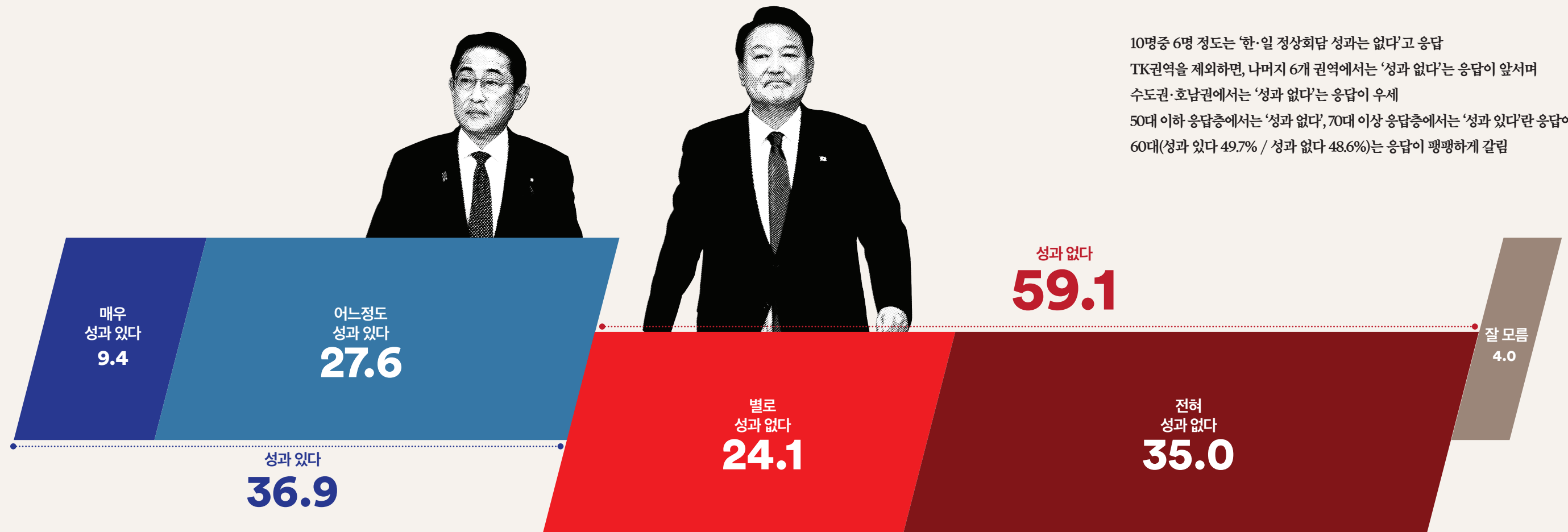


##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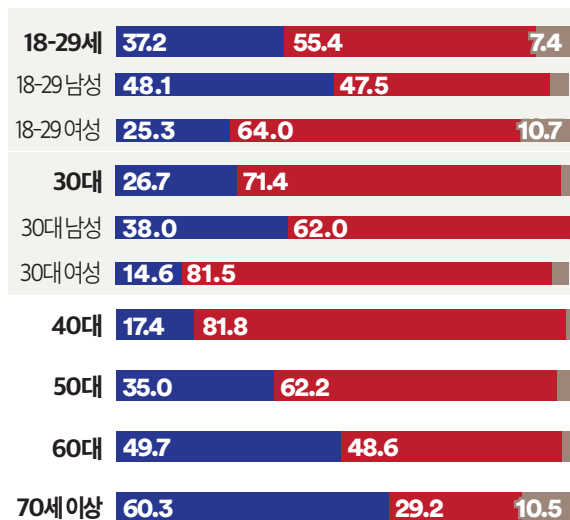
### 한·일 정상회담 성과

Q. 윤 정부는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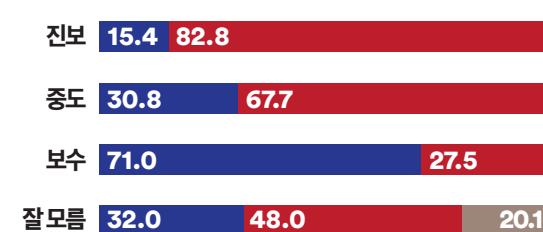
10명중 6명 정도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는 없다'고 응답  
TK권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6개 권역에서는 '성과 없다'는 응답이 앞서며  
수도권·호남권에서는 '성과 없다'는 응답이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성과 없다', 70대 이상 응답층에서는 '성과 있다'란 응답이 우세,  
60대(성과 있다 49.7% / 성과 없다 48.6%)는 응답이 팽팽하게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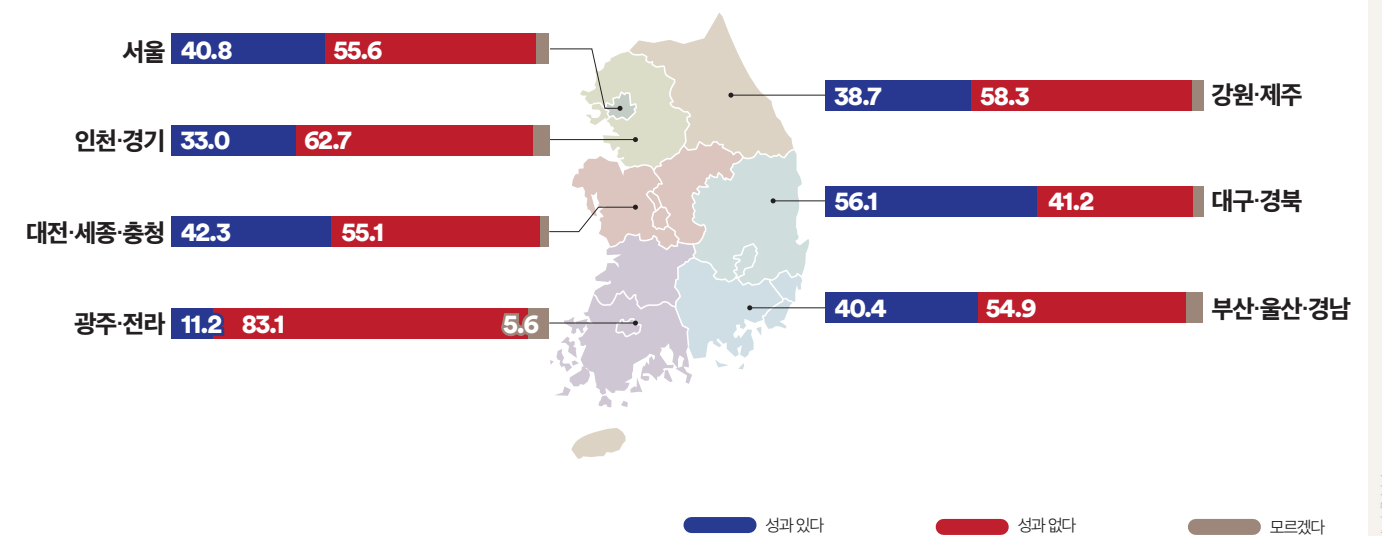
#### 연령



#### 이념성향



#### 권역



# 여론조사꽃 제3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윤 정부 출범 1년

## ARS & CATI / CATI

현 정부의 어려움은 누구의 책임일까

정부의 경제 전망과 경기 회복 예측

어려운 경제 상황의 원인

공직자 재산 신고 범위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어려움이 전 정부 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원인에 대해 묻고 그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현정부의 어려움은 누구의 책임일까

Q. 출범 1년을 맞이한 현 정부의 어려움이 전임 정부 책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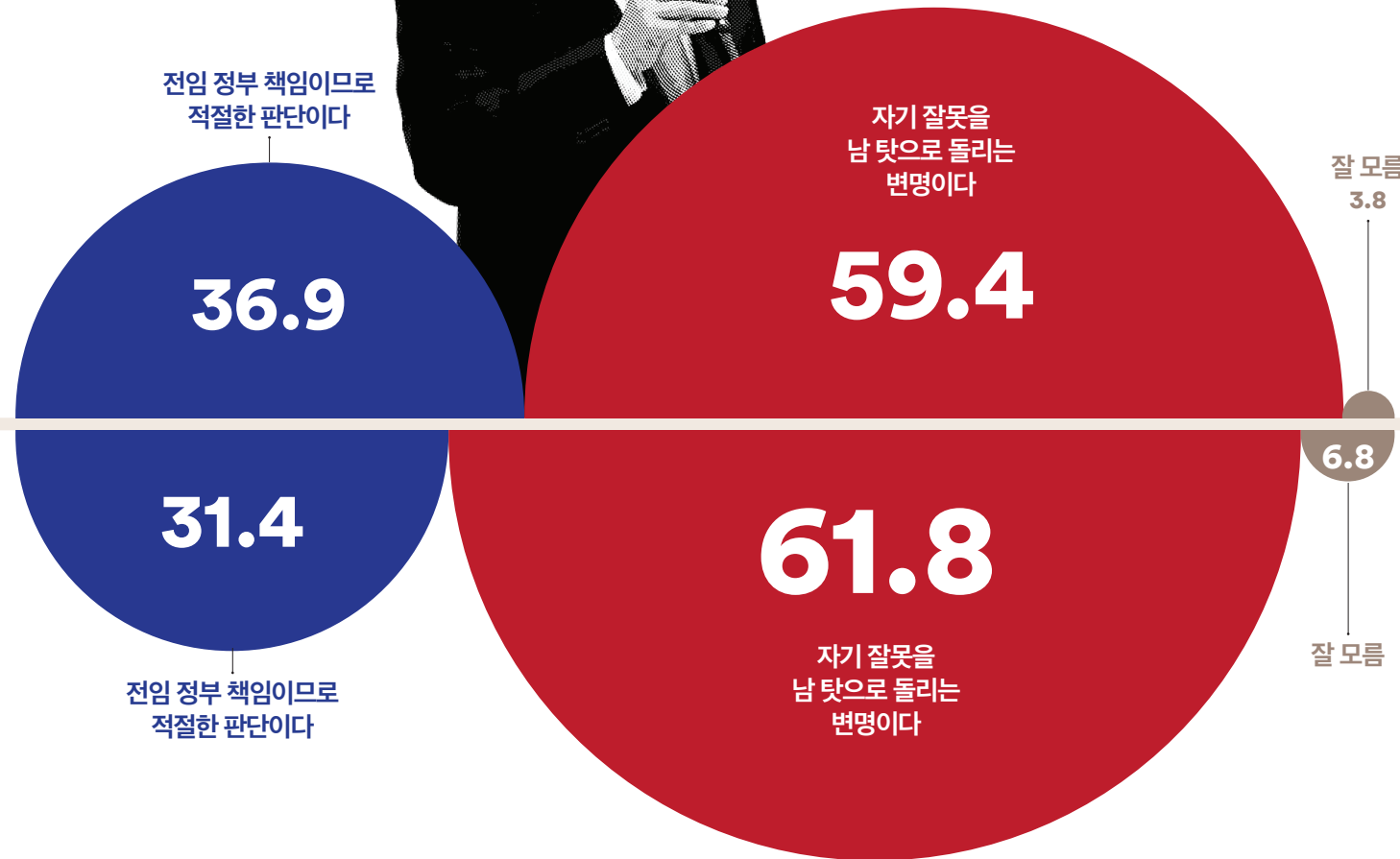
ARS

CATI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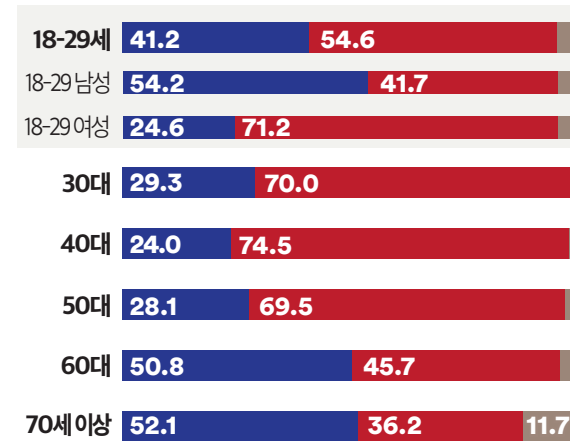
[5월 9일 국무회의, 윤 대통령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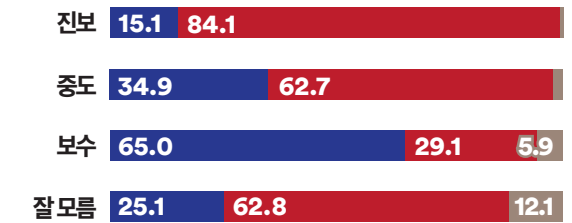
전임 정부 책임이므로 적절한 판단이다

두 조사 모두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는 '남 탓으로 돌리는 변명'이라 응답  
TK권역은 '전임 정부 책임이므로 적절한 판단'이란 응답이 10%p 이상 앞섰고,  
나머지 6개 권역은 모두 '남 탓으로 돌리는 변명'이란 응답이 앞섬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남 탓으로 돌리는 변명', 70세 이상은 '전임 정부 책임이므로 적절한 판단'이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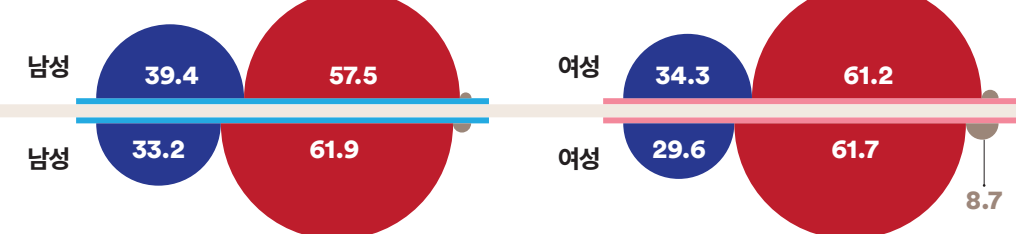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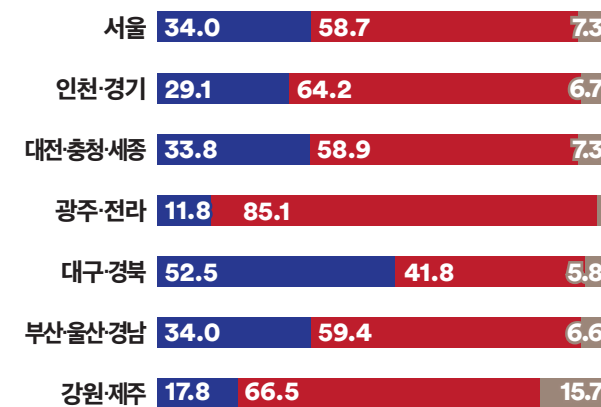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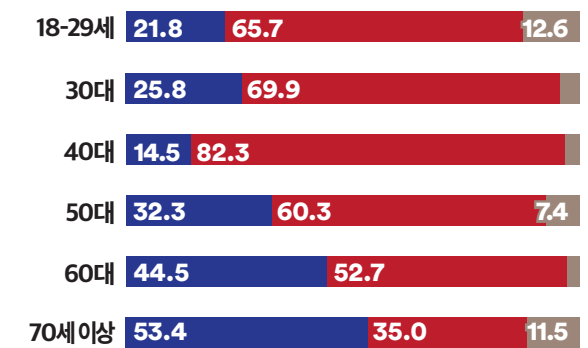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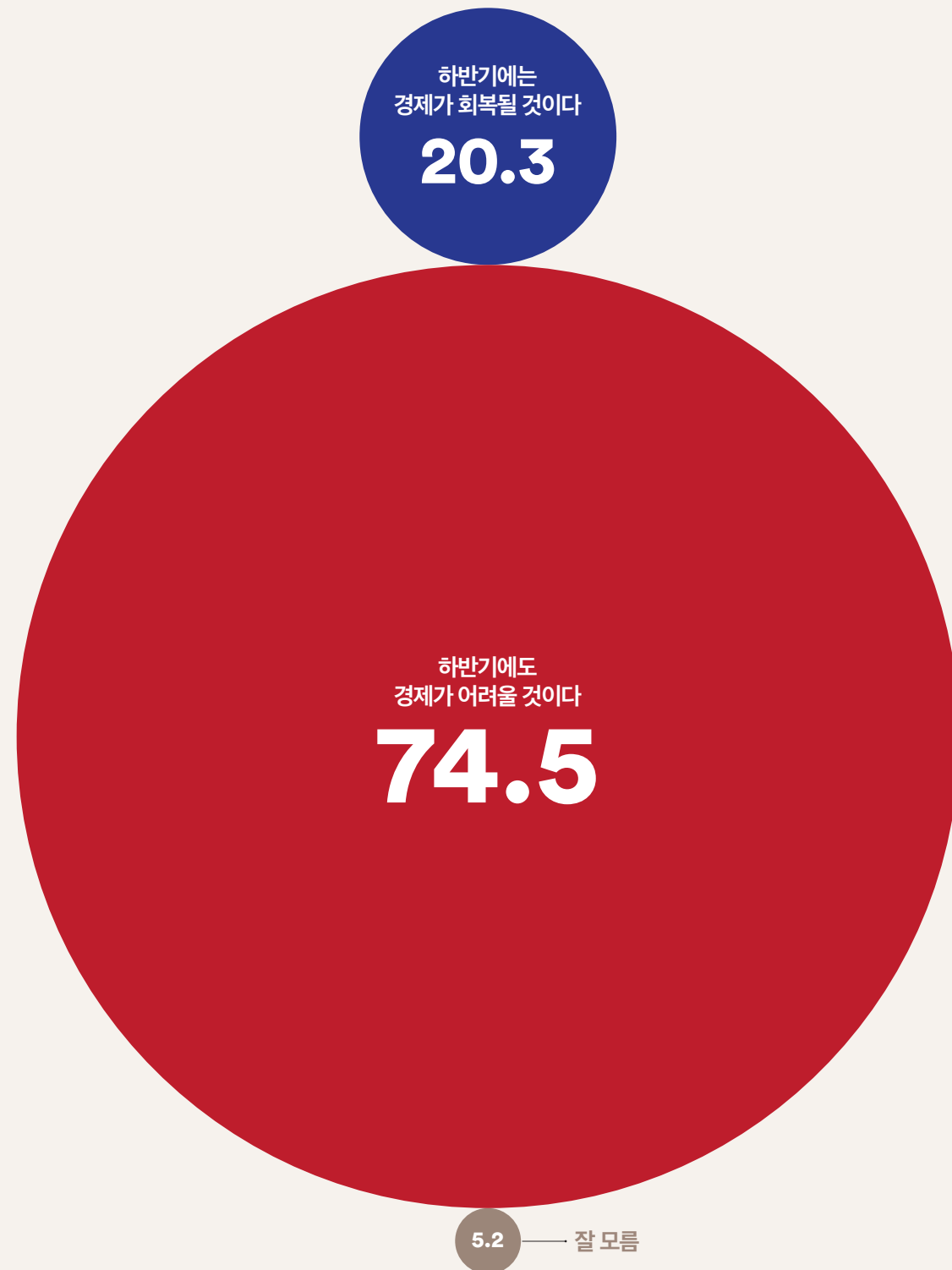


적절한 판단이다 남 탓으로 돌리는 변명이다 모르겠다

##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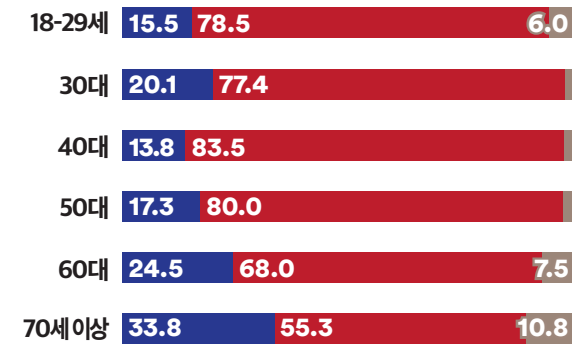
### 정부의 경제 전망과 경기 회복 예측

Q.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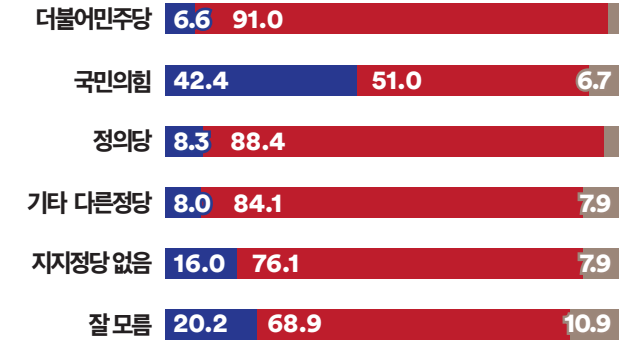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은 '하반기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를 보임  
모든 성·연령·권역·모든 이념층에서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우세  
국민들이 정부의 국가운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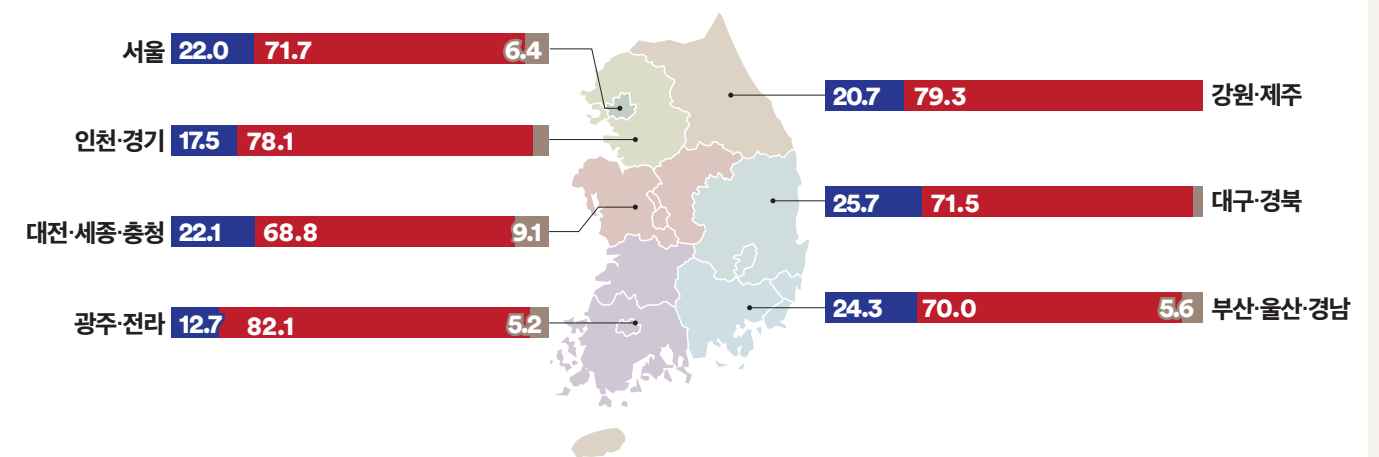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 성별



#### 권역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다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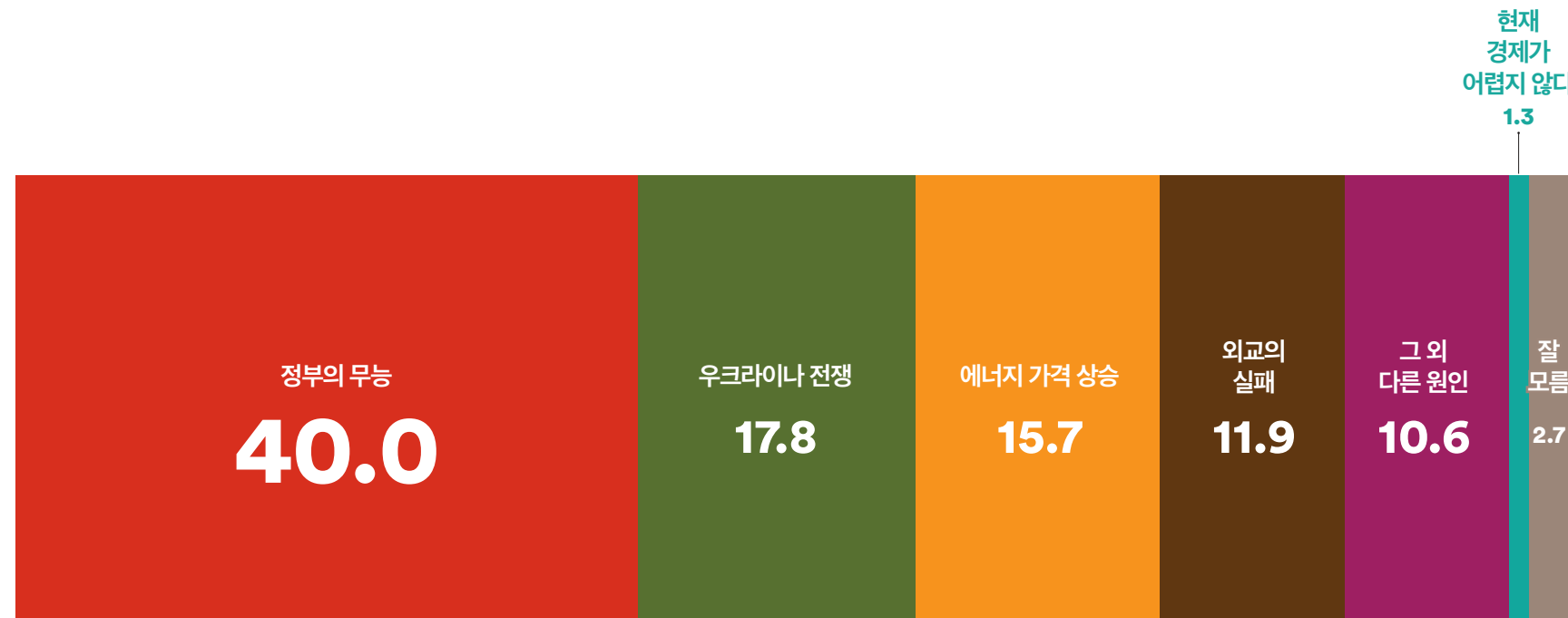


##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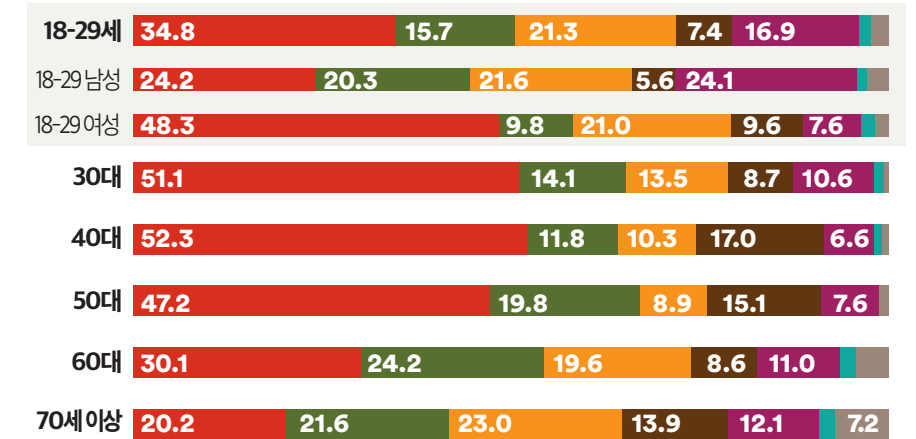
### 어려운 경제상황의 원인

Q. 현재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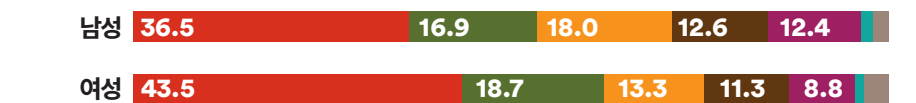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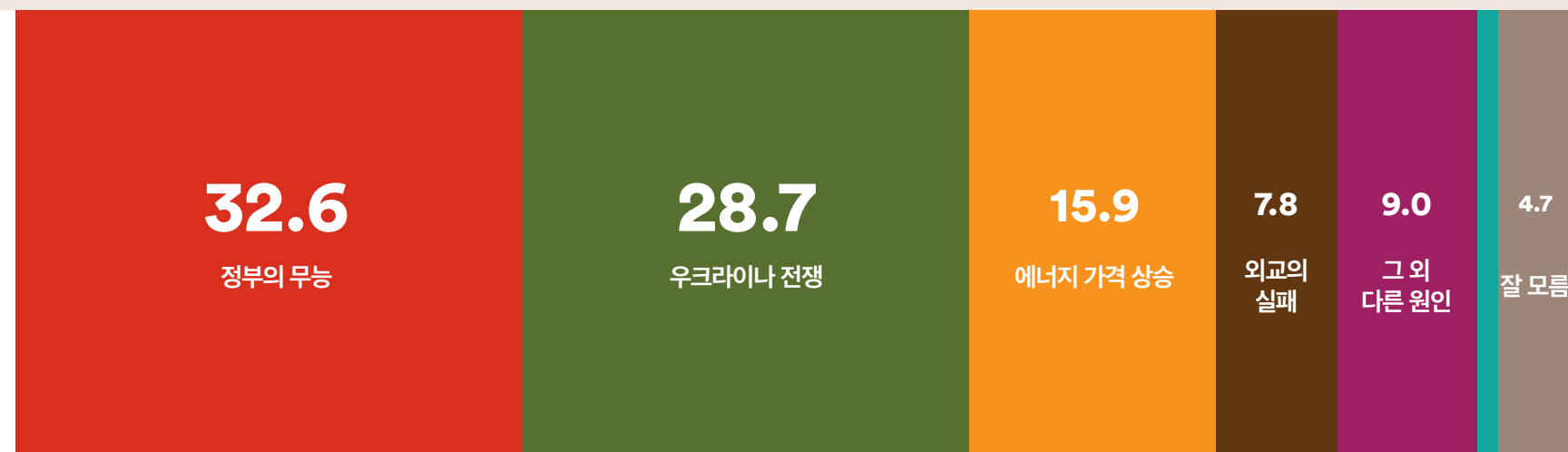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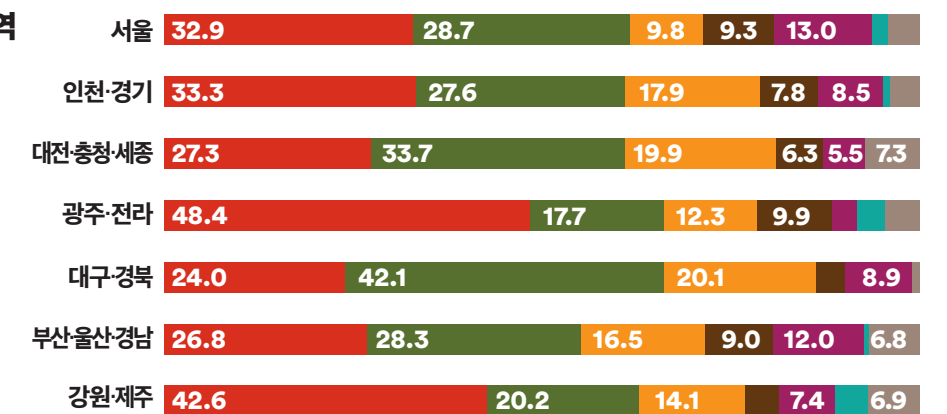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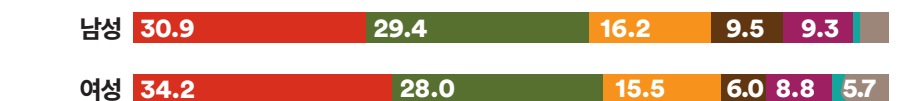
CATI



#### 권역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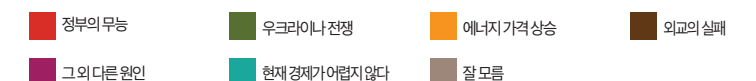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정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ARS 조사는 모든 권역과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 남녀 모두에서 '정부의 무능'이란 응답이 가장 많음

CATI 조사는 수도권, 호남, 강원·제주, 30~50대, 남녀 모두에서 '정부의 무능'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충청, TK, PK 3개 권역과 18~29세\*와 60대이상 연령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응답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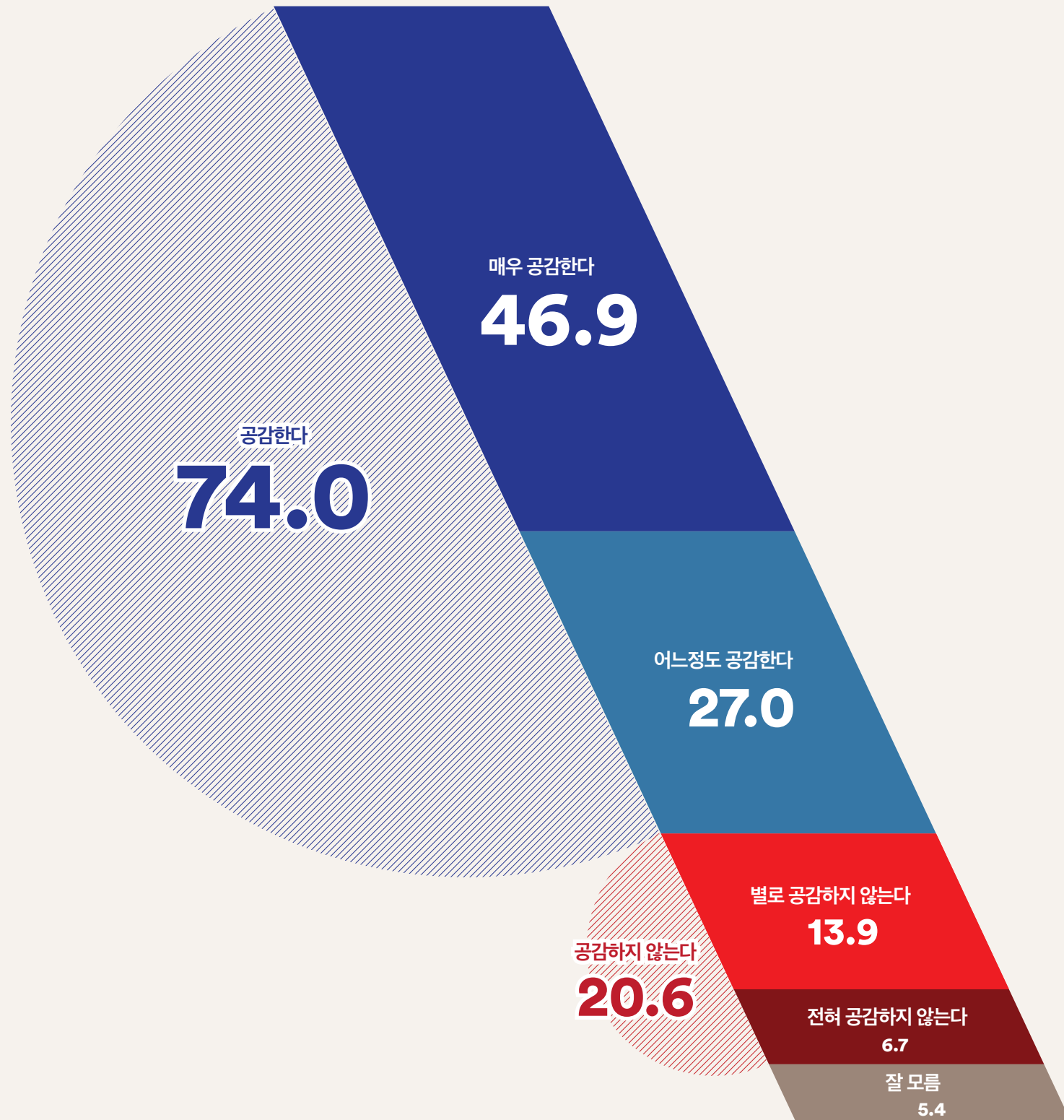
\* 18~29세 남성은 우크라이나전쟁(40.2%)을, 여성은 정부의 무능(32.3%)을 우선순위로 선택



##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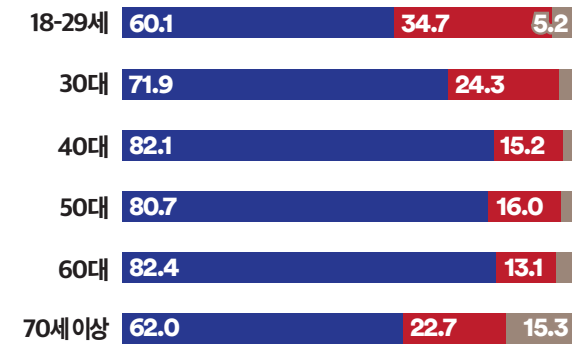
### 공직자 재산신고 범위

Q.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중 7명은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 압도적 우세를 보임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  
지지정당,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다수 응답 변수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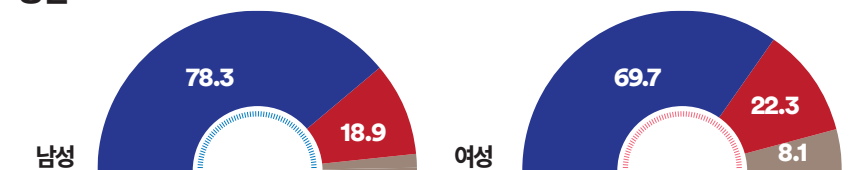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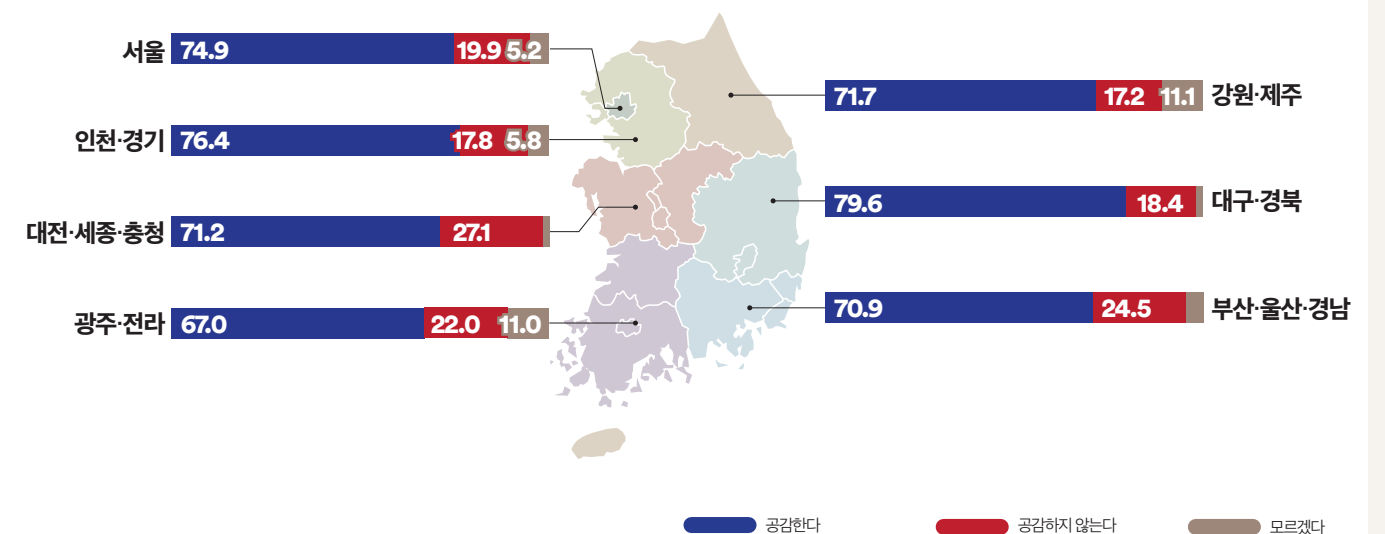
#### 이념성향



#### 성별



#### 권역



# 여론조사꽃 제3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